

D. H. Lawrence에 있어서의 階級意識 克服의 問題

崇 永 洙*

I.

거의 모든 정치체제가 제각기 다른 접근방식에서나마 「民主」라는 공통의 지향 목표를 구호로 내걸고 있는 것처럼, 문학 행위의 다양한 기본 입장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추구 목표는 「自然」에의 충실성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ristoteles의 고전적인 문학론은, 「自然」을 충실히 모방하는 것이 문학에 맡겨진 본래적 기능이라고 간주하는 입장이었고, A. Pope로 대표되는 영국 신고전주의의 문학론이 이성 능력의 활용을 통하여 삶의 보편적 법칙을 밝혀내는 일을 문학 제일의 사명으로 표방했을 때에도 「自然」의 질서를 순간적인 감정의 영향으로 흐트러짐이 없이 인식하고 표현하려는 문학의식에 있어서 고전적인 문학 모방론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 하겠다.¹⁾

그러나, 이러한 고전주의 문학론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일어난 낭만주의 문학운동도 전통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한 「自然」의 회복을 시대적 문학과제로 표방하였다는 점은 주

1) A. Pope는 自然을 神의 攝理의 나타남으로서의 現象界로 보았는데, 이는 同時代의 비평가 John Dennis가 “理性은 보이지 않는 世界의 秩序이고, 自然은 보이는 世界의 秩序이다.”라고 한 말과 비슷한 의미라 할 수 있다.

All are but parts of one stupendous whole,

Whose body Nature is, and God the soul:

That, changed through all, and yet in all the same.

<from 'An Essay on Man', (ll. 267-9.) by A. Pope.>

* 師範大學 助敎授

목할만하다. 그들에 의하면 고전주의적 문학관은 인위적인 규범과 사회적인 제도의 속박을 통하여 인간성의 「自然」을 파괴했으니 새 시대의 문학은 그러한 고전주의적 전통의 속박을 과감히 타파하고 인간정신의 자유로운 발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연에의 충실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 고전주의 및 낭만주의의 주창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전혀 상반되는 문학관에 도달하게 된 것은 그들이 말하는 「자연」의 속성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 문제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간단히 말해서, 고전주의자들의 자연은 자신의 외부에서 발견되는데에 비하여, 낭만주의자들의 자연은 자신의 내부에서 발견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전주의자들은 그들이 추구하고 의지해야 할 보편적인 질서와 규범 즉 자연법칙을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권위속에서 찾았으니, 그러한 권위는 神과 같은 초인간적인 實體에서 나올 수도 있었고, 자연의 정확한 모방이라는 면에서 다수인들에 의해 그 모범성이 공인된 고전문학의 전통에서 나올 수도 있었다. 개개인의 心性은 근본적으로 무력하거나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自然의 극히 작은 一部가 단편적으로 명멸할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하여 그러한 보잘 것 없는 개인 능력을 초월한 영구불변의 어떤 理想型을 가상할 수밖에 없었던 고전주의자들은 그러한 초개인적인 理想型에 무릎꿇고 숭배드리기를 바랐다. 個性으로부터의 逃避를 진실한 文學人의 美德이라고 보았던 T. S. Eliot의 문학론은 고전주의적 문학관의 현대적인 유형이라고 하겠거니와, A. Pope등의 신고전주의적 自然觀에 따르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규범속에 초개인적인 자연의 법칙이 구현되어 있는 이상 개개인은 각자의 개성적 특질을 최소화하고 각고의 훈련과 교화를 통한 예술적 (또는 기술적) 自己統制로써만 外來의인 自然의 法則을 內面化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반면에 낭만주의자들에게 있어서의 自然은 근본적으로 개개인 자신속에 본래부터 품고 있었던 天性으로서, 이것은 外來의 客觀的인 傳統에 의해 파괴될 위험이 크고, 따라서 人間의 文明 現象에 의해 덜 教化된 것일수록 귀중한 자연의 속성을 더욱 많이 보존하고 있다는 결론을 낳는다.²⁾ 고전주의자들에게서 배척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個人的 主觀性은 낭만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옹호하고 개발·발전시켜야 할 최고의 미덕이 되었으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개개인의 독특한 心性과 순간적인 충동과 자유분방한 상상력이야말로 人間性의 自然에 대한 아무런 간섭과 속박 없이 자유롭게 발현되는 참다운 문학정신의 원천이었던 것이다. 낭만주의자들의 기본적인 가정에 따르면, 개개인은 원래 꼭 같은 심성을 타고 나지 않는 것이고 외부의 어떤 획일적 구속으로부터도 자유로와 지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는데, 그들의 개성을 총합적으로 지배하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를 발견하려 하거나 모든 개인들을 하나의 규범이나 형식으로 묶어 두려고 하는 일은, 자유로움 가운데에서 그 존재의의를 찾아야 할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을 파괴하는 짓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D. H. Lawrence를 自然回歸主義者로 보려는 本論考의 입장은, 人間性의 自然이 文明 現象에

2) 人爲의 加工을 덜 하는 것이 自然狀態를 回復하는 길이라는 東洋의 道教思想은, 이런 의미에서 서양의 浪漫主義 文學論과 類似하고, 또한 教育的인 노력에 의해서만 自然의 法則을 體得할 수 있다는 新古典主義 文學論과 對立된다고 보겠다.

의해 크게 파괴되고 있고 自然破壞的인 이러한 문명 현상은 인간에 대한 보편타당한 理想型이나 先入見的인 固定觀念의 形成과 同一한 軌跡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의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D. H. Lawrence에 따르면, 개인의 存在의 充滿性을 얻기 위해서는 개인 내부의 自然發生的인 欲求와 衝動에 따라야 되고 어린이에 대한 교육도 自發的인 自我(spontaneous reality)가 物質的인 自我(material reality)로 타락하지 않도록 능해야 하는데 文明化와 社會化의 과정은 인간 생활을 定型化·枯息化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꽃봉오리를 제 철이 되기 전에 억지로 터뜨림으로써 본래의 꽃의 모습을 일그러뜨리는 것과도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인생의 목적을 固定觀念의으로 미리 設定하여 어린이들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機械化·物質化시킴으로써 自然으로서의 인간성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梗塞케 하고 있다는 것이 Lawrence의 주장인데 여기서 잠깐 그의 발언을 인용해 본다.

There can be no ideal goal for human life. Any ideal goal means mechanization, materialism, and nullity. There is no pulling open the buds to see what the blossom will be. Leaves must unroll, buds swell and open, and then blossom. —...a blossom is an unfolding of the creative unknown. Impossible, utterly impossible to preconceive the unrevealed blossom. You cannot forestall it from the last blossom. We know the flower of today, but the flower of tomorrow is all beyond us. Only in the material-mechanical world can man foresee, foreknow, calculate, and establish laws.³⁾

Raymond Williams도 지적하고 있듯이,⁴⁾ 이같은 Lawrence의 개인주의는 민주주의보다는 浪漫的 無政府主義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무리하게 규정하려 드는 어떤 사회 운동도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없으며, 그것이 인류애나 시민정신 등 추상적인 명분으로 아무리 그럴듯 하게 정당화된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의미에서 개개인의 生の 意味를 밖에서부터 규정지으려는 시도는 야비하고 오만한 인간성 침해라고 보는 것이 Lawrence의 견해인 것이다.

자연으로서의 인간성의 내용을 미리 설정하고 강요하는 일은 어쩌면 文明化나 社會化 過程의 본질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일 것이고, 文明現象으로서의 人間性規定 過程은 여러가지 형태와 양상을 통하여 관찰되고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自然回歸主義者로서의 Lawrence 또한 그의 수많은 작품속에서 文明化에 의한 人間性 破壞 過程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本論考에서 살펴보고 하는 것은 文明化 과정에서 생성된 社會階層的 差別意識이 인간 본래적인 욕망과 충동의 자유로운 발현을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지 하는 문제이고, 이러한 계급의식의 문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시킨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그의 *Daughters of the Vicar*를 선택하였다.

Lawrence가 29세 되던 1914년에 나온 *Daughters of the Vicar*는 文明의 所產으로서의 계급의식

3) D. H. Lawrence. *Selected Essays*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Books Ltd., 1976), p.92.

4) Raymond Williams, *Culture and Society 1780-1950*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Books Ltd., 1982), p. 208.

에 대한 自然 本能의 반항과 승리를 통하여 Lawrence의 自然回歸主義가 표명되고 있다. 사회적 신분에 대한 選民意識인 自負心도 그것이 긍정적으로 발전될 경우에는 非人間的인 卑賤함과 잔인함을 멀리 하는 高潔한 人格으로 통할 수 있겠지만, 이 작품 속에 나오는 Lindley家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적 체통과 권위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자연 본능을 묵살하고 비인간적인 非情性을 드러내는 극히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계급의식에 의해 인간성의 자연이 파괴되는 대표적인 주인공은 Lindley 목사의 딸 Mary와 그녀의 남편 Mr. Massy이고 이들의 계급의식적 인간성 상실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보여주는 주인공은 Lindley목사의 작은 딸 Louisa 및 그의 애인 Alfred Durant인데 먼저 Massy-Mary couple에서 보는 反自然的 階級意識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Massy-Mary couple의 계급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Mary의 아버지인 Lindley목사의 성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Lindley목사는 광산촌 Aldecross마을에 새로 세워진 교회에 부임해 온 초대 담임 목사로서, 워낙 빈궁한 教區인데다 教區民들의 교회 운영에 대한 열성도 아주 소극적인 관계로 그는 끊임없는 생활난 걱정이다 지역 주민들의 냉대 가운데에서 목사로서의 사회적 체면 유지에 급급해야 할 정도로 껌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곱사등 생쥐처럼 쭈그러 앉아있는 듯한 (crouched like a humped mouse) 교회 건물이 겁먹은 듯한 모습 (an uncertain, timid look)으로 마을에서 멀찍이 물러나 앉아 있다는 표현이나, 상류계층에 속해야 할 목사로서의 체통을 무릅쓰고 教區內 호별 방문을 하면서 교회 달력을 배달하고 딸의 피아노 레슨비를 수급하고 돌아오는 모습들은 독자들의 동정을 자아낼 정도이다. 그러나 Lindley목사의 궁핍한 생활에 대한 동정심은 교구민들에 대한 목사 자신의 애정 결핍을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 이 목사의 정신적 황폐상에 대한 연민과 義憤으로 바뀌어 간다. 즉, 목사의 가정방문은 복음 전파에 대한 보람을 느낌이 없이 마지 못해 하는 일로 (in dull routine) 행해지고 있고, 그는 목사 직무 수행에 대해 다만 공허감과 역겨움을 느낄 따름이다 (He felt barren and rather irritated).⁵⁾

Lindley목사가 교구민들에게 대해 따뜻한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은 그가 잡화상을 보는 Durant부인을 방문했을 때부터 나타나고 있다. Durant부인은 아들 Alfred가 해군에 입대하게 되어 그의 신변이 걱정스럽다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 Lindley목사는 그 아들이 집에 있으면서 술 버릇이 나빠지는 것보다는 고된 군대 생활로 심신을 단련시키는 것이 오히려 잘된 일 (no regrettable step. p.111)이라고 어머니를 나무라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목사의 말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년간의 위험한 군대 생활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인간적인 감정 발로에 대해 동정과 위로의 인사를 건네 줄 생각을 못하는 이 목사의 非情함에 대해서는 그 인간됨의 경직성과

5) D. H. Lawrence, *Selected Short Stories*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Books Ltd., 1982), p.112.

※ 앞으로 이 작품에 대한 인용은 이 책으로부터 따 올 것이다.

폐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늙은 나이에 의지하고 싶은 아들 (a support to my old age)과 헤어지려는 노부인에게 Lindley목사는 군문에 봉사하는 것이 아들의 영광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들에 대한 모성애의 발로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Lindley목사는, 신앙심이 희박하고 성직자에 대한 존경도가 낮은 그의 교구민들을 경멸하고 있었고 그들이 자기보다 신분이 훨씬 낮은 광산 노동자라는 뿌리 깊은 계층차별의식 (consciousness of class-distinction)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하여, 교구민들의 교회 불신 태도가 못마땅하고 그들의 불경건한 태도를 압도할 정도의 사회적 신앙을 얻지도 못하여 그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었던 그의 목사직 생활은 무기력하고 고심참담하고 무감동한 것이었으며 (He dragged on, pale and miserable and neutral. p.107), 그야말로 무미로운 세월보내기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혼기가 다 된 딸 Mary를 광산촌의 경건치 못한 移住民들 (the new, raw, disaffected population of colliers. p.106)에게로 출가시키는 것은 그에게는 정말로 마음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이렇게 딸들의 마땅한 혼처가 없어 고민하던 Lindley목사네 집에 때마침 등장한 인물이 Mr Massy였는데, 신체적 정신적 불구자인 이 괴이한 청년 목사의 초상화야말로 기독교적 정신주의에 대한 D. H. Lawrence의 신랄한 비판의 강도를 짐작케 해 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Mr Massy는 Oxford 대학 출신의 文學碩士이고 불원간 있게 될 목사직 서임을 기다리는 동안 Aldecross교회에 와 있으면서 사병중인 Lindley목사를 보좌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장래가 촉망되는 이 총각 청년의 목사관 입주를 온 식구가 뜨겁게 환영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딸 Mary에게 적당한 혼처가 생길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었다. 기다리던 예비 목사가 그들이 상상하던 늙은 현현장부가 못되고 꾸부정한 5척 단신에 수줍고 겁많은 골센님이었다는 사실이 Lindley목사 부부를 잠시 실망케 하기는 했지만, Massy의 장래 생활에서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목사라는 높은 신분 및 그에 따른 상당한 수입은 사회적 신분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이 목사 부부의 혼사 거론에 결정적인 고려 사항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Massy-Mary couple의 결혼 성립은 별다른 난관없이 순조롭게 이루어 졌다. 그러나 별다른 난관이 없는 대신에 이 혼인은 또한, 사랑의 환희도 없고 求愛의 전율도 없었으며 그리하여 成婚의 별다른 감격도 없는 만남이었다. Massy는 당사자인 Mary에게 애정 고백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녀의 아버지의 의사를 먼저 타진하고 있고, 딸의 혼사는 딸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부친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고서야 Mary에게로 가서 부친과의 婚談사실을 알려 주는데, Massy의 우회적인 청혼을 받은 Mary는 이 문제를 다시 모친에게로 가져가고 모친 또한 그들 두 사람의 결혼은 부친에게 거부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도의 아주 마운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다. 이들중 누구 한 사람, 이 결혼에 대해 적극적인 열성과 솔직한 감정을 표시하는 이가 없고, Lindley목사 부부의 관심사는 오로지 이 혼인이 가져올 사회적 신분 유지에 있었고, 딸 Mary의 관심사는 부모의 기대에 충실히 따른다는 의무감이었으며, Massy 또한 결혼에 대해 사랑의 감정을 연결시킬 수 있는 위인이 못 되었다.

Massy의 경직된 인간성으로 말하면, 다음 대목에서 보듯이,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동을 단호히 억압하는 위에 자신의 지성과 고정관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굽힐 줄 모르고, 그가 참여하는 담론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한 가닥 흐트러짐이 없이 냉철하고 理路整然한 高談峻論이 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한다.

He had not the normal powers of perception. They soon saw that he lacked the full range of human feelings, but had rather a strong, philosophical mind, from which he lived. His body was almost unthinkable, in intellect he was something definite. The conversation at once took a balanced, abstract tone when he participated. There was no spontaneous exclamation, no violent assertion or expression of personal conviction, but all cold reasonable assertion. (p.114)

그의 세계는 따뜻한 인정미와 인간적인 체취를 느낄 수 없는 無色透明한 論理의 세계요, 지적 인 미숙이 혹시 범할 수도 있는 인간적인 과오나 客氣 같은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가차없는 멸시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인간성의 非論理的인 虛點을 전제로 한 소설 같은 것을 보는 일은 그에게는 무의미한 徒勞에 불과했다. 평범한 사람들과의 객적은 대화는 참을 수 없는 시간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는 자기만의 폐쇄된 세계속에 칩거해 있으면서 (always apart in a cold, rarefied little world of his own) 주변 사람들의 신상 문제 같은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와 반면에 Massy가 갖는 헌신적인 의무감과 신앙심 또한 가히 비범한 것이었다. 그는 교구 관리자로서 자기가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실천 방안을 치밀하게 고안해 내었으며, 교회의 재정을 유능하게 관리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 모든 수완에도 불구하고, 그가 독자들에게 인간적인 혐오감을 자아내는 까닭은, 그의 교회 업무 처리는 마치 기계 장치의 작동이나 수학 문제의 풀이와도 같이 순전히 정해진 원리 원칙에 따르는 심정으로 행해 졌고, 빈민구호 사업등 남을 도와 주는 일에 있어서도 그들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동정심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의 결혼 상대자인 Mary가 그의 철저한 책임감을 존경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그의 이러한 高踏的인 정신주의 때문이었다.

His kindness almost frightened Mary. She honored it so, and yet she shrank from it. For, in it all Mr Massy seemed to have no sense of person, any human being whom he was helping: he only realized a kind of mathematical working out, solving of given situations, a calculated well-doing. And it was as if he had accepted the Christian tenets as axioms. His religion consisted in what his scrupulous, abstract mind approved of. (p.115)

그러나 Mary 또한 도덕적인 의무감이 뛰어난 여자였으므로 인간적인 거부감을 강한 의지력으로써 억누르고 그의 敎區巡訪등 업무 수행에 충실한 內助役이 되어 준다. Alfred의 부친 Mr Durant가 운명하는 자리에서 Massy가 보여준 무감각한 태도를 Louisa가 비난할 때 그의 진실한 덕성을 변호하는 Mary의 충정은 그녀의 헌신적 신앙심을 잘 보여준다. 죽음을 애통해 하는 가족들 앞에서 한줄기 감정의 동요도 없는 비정어린 표정으로 (with a pure lucidity), 마치 죽음이란 절대자의 뜻이므로 슬퍼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듯이 (that they all might conform to the higher will) 기도문을 줄줄 외우고 있는 Massy의 인간성은 Louisa에게는 감정의 백치처럼 생각되었으나 그의 아내 Mary에게는 참다운 기독교 신앙인의 전형처럼 여겨진 것이다.

이렇게 Massy의 도덕적 정신주의에 心服하는 Mary는 또한, 다음의 발췌문에서 보듯이, 그와

의 관계에서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수치감과 자기 상실감을 의지력으로써 차단시키고, 자연발생적인 감정의 분출을 이성의 힘으로 억제하였으며 하층민들이 겪는 경제적인 곤란에서 벗어나는 것을 결혼의 주요 목표로 하였으니, 그녀에게 있어서는 육체와 본능은 인간성의 저열한 요소였고, 정신과 의무감이야말로 인간성의 가장 숭고한 요소였던 것이다.

Mary, in marrying him, tried to become a pure reason such as he was, without feeling or impulse. She shut herself up rigid against the agonies of shame and the terror of violation which came at first. She would not feel. She was a pure will towards right. she had sold herself, but she had a new freedom. She had got rid of her body. She had sold a lower thing, her body, for a higher thing, her freedom from material things. ...There remained only the direction of her activity towards charity and high-minded living. (p.121)

그러나, 신앙심을 빙자하여 인간성의 자연을 말살시키려는 남편과 살아 가는 동안 Mary의 내면에는 남 모르는 자기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즉, 결혼후 그녀는 남편과의 동반 외출이 부끄럽게 생각되었고, 도덕적인 의무감으로써 본능적인 욕구를 억압하는 그들의 생활이 그녀 자신의 인간성의 주요한 부분을 무시하는 것 같은 (murdering herself) 느낌이 들었으며, 자신의 경직된 논리를 강요하는 자기도취적인 (self-complete) 남편이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처럼 (like a cold machine) 생각되었다. 더구나 그녀에게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는 그 동안 억눌려 있었던 이러한 자기 분열의 갈등 의식이 그녀의 心中에 고통의 먹구름을 일게 하였다. 문명과 종교와 논리 같은 것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육체적 본능만으로 성장하는 신생아의 생태는 인간생명력의 근원에 대한 그녀의 인식력을 새롭게 해 주었으며, 그리하여 어린 아기를 껴안은 그녀의 두 손을 통하여 그녀는 이제까지 외면해 왔던 육체의 요구에 눈 뜨게 되었던 것이다.⁶⁾ 다음 대목에서 보듯이, 자신의 육신이 갈라져서 태어난 아기를 사랑하는 일이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그 아기는 사실상 육체의 의미를 망각하고 있는 그녀의 운명을 일깨워 주는 힘이기에 공포와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표현은 새 생명을 키우는 그녀의 의식 분열과 자기 해체 체험을 잘 보여주고 있다.

Then she found herself with child, and for the first time felt horror, afraid before God and man. Her heart hurt in her body, as she took the baby between her hands. The flesh that was trampled and silent in her must speak again in the boy. She looked and lookde at the baby, and almost hated it, and suffered an anguish of love for it. She hated it because it made her live again in the flesh, when she could not live in the flesh. ...Her purpose was borken in two again.

6) 이 문제에 대한 Brian Finny의 다음과 같은 해설은 우리의 이해력을 도와주는 바 크다.

In Mary's case, nature, which she has repressed in overcoming her repulsion at her husband's physical deformities, reasserts itself in the form of her baby for whom she feels all those natural emotions that she had so laboriously subdued. The conflict between these mutually opposed demands tears her apart, leaving her purposeless and without real being.

B. Finny, ed., *Selected Short Stories* by D. H. Lawrence, Introduction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Books Ltd., 1982), p.16-7.

She had to become amorphous, purposeless, without real being. As a mother, she was fragmentary, ignoble thing. (p.122-3)

아들의 출생은 Massy목사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으니, 이제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대한 인간적인 동정심을 보여 본 적이 없던 그가 유독 자기 자식에게만은 빈틈없는 보호와 자상한 부성애를 베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식에 대한 그의 애정 표시가 그의 경직된 인간관이나 감수성 체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자기가 가진 소유물에 대한 집착만을 보여주는 극히 옹졸한 자기중심주의에 불과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 또한 아들의 안전과 건강이 그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 버렸지만 (his terror was for its safety and well-being, p.123), 어린 아기에 대한 사랑을 신체적인 애무나 유희등으로 표시하는 법은 없고, 다만 목욕이나 급식의 시간을 엄수하게 하고 애기가 보채는 이유를 엄마에게 추궁하는 따위의 방법으로 자녀 사랑을 베풀려는 데에도 그다운 규범적인 정신주의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하여 아들의 존재가 그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空洞化시켰다는 점 (it filled, and at the same time, emptied his mind, p.123)에서, 아버지로서의 새로운 체험을 인간관에 있어서의 새로운 地平 發見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그의 化石化된 인간성을 짐작케 해 주는 것이다.

아들이 세 살 되던 해 크리스마스 날에 이들 부부가 Lindley목사댁으로 방문갔다 오는 동안 있었던 일은 Massy라는 사람의 그러한 경직성을 잘 보여준다. 남편과의 관에 박힌 듯한 결혼생활에 중압감을 느끼고 있던 (His eternal presence was like an iron weight on her brain, p.124) Mary가 心氣一轉의 계기를 위해 잠시 친정 나들이를 제안했을 때 그는 처음에는 난색을 보이다가 그녀들이 아기의 授乳에 좋을 것이라는 (good for the milk) 이유를 듣고서야 허락해 준다. 아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기보다는 아이들의 양육자라는 기능적인 면에서만 그 가치를 인정하려는 것은 그가 평소부터 지녔던 비정한 태도였던 것이다. 또한, 일행이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아들 Jack가 눈보라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시골 풍경들을 내다보려고 할 때 아이들의 자연에 대한 감동을 이해할 줄 모르는 이 아버지는 창틈으로 들어오는 외풍에 감기 걸릴 것이라는 염려만 내세우면서 아들을 제지하였고, 처가댁에 가 있는 동안에는 어린 딸 아이가 싫다고 뿌리치는데에도 정해진 목욕 시간을 억지로 지키게 하면서 생리 본능보다는 인위적인 규범의 강제를 우선시키고 있다.

Ⅲ.

사회적인 계급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기독교적 고정관념의 노예가 된 Massy-Mary couple과는 상반되는 입장에서 서서 사회 계층의 두꺼운 벽을 감연히 허물어 버리고 육체적 욕망과 자연적 본능을 자유롭게 분출시킨 한 쌍의 남녀가 Alfred-Louisa couple인데 이들중 우선 Louisa의 성격 특징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Louisa와 Mary는 똑같은 부모의 태생이면서도 여러가지 면에서 흥미있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즉, 언니인 Mary는 날씬한 몸매에 미모의 얼굴 (a slim thing with a

fine profile. p.108)을 하고 있는데 비해, 동생인 Louisa는 고집스런 인상을 주는 (obstinate-looking) 통통한 몸집과 수수한 얼굴 (plump and plain)을 하고 있으면서 미소지을 때에야 그 독특한 매력을 발산한다(bautiful when she smiled). 또한, 이러한 외모의 인상이 암시하듯이, 언니는 점잖은 목사의 딸이라는 자기 신분을 자랑스레 여기고 순종적인데 (a proud pure look of submission to a high fate) 비하여, 동생은 사회적 신분같은 것에 연연해 하는 목사관 사람들에게 반발하고 오히려 하층민들의 소박한 인정미를 중히 여긴다.

Louisa가 아버지 Lindley목사의 위선적인 권위의식에 처음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녀의 성가대 친구인 Alfred의 군입대에 대한 아버지의 물인정한 태도에 대해서였다. 즉, 무질서한 광부 생활보다는 기율 엄한 군대 생활이 험기왕성한 청년의 방종한 버릇을 고치는 데에 더 효과적이라는 아버지의 말이 (p.112~3) Alfred의 다정다감한 인간미를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고 여겨졌던 것이다. 이 장면에서도 Mary는 아버지 편을 들어서 자유분방한 성격의 Alfred를 나무라고 있지만, 이들 두 자매의 성격 차이가 더욱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철저한 정신주의자 Massy에 대한 두 사람의 태도에서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Mary는 신체적 정신적인 불구자 Massy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을 도덕적인 의무감으로 억누르고 그의 칭혼을 수락하는데 반하여 Louisa는 언니의 그러한 自己否定 (self-denial) 태도에 대해 심한 반발감을 느낀다. 비록 그 청년 목사에게 불가사의한 정신력 같은 것 (some curious power, some unanswerable right. p.121)이 있고 사람들이 거부하지 못할 의지력 (a will that they could not controvert)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사람됨의 어딘가에는 그녀의 피를 역류시키는 듯한 저항감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더구나, Durant 노인의 임종시에, 인간의 죽음을 사무적인 일 처리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 같은 정서장애자 Massy에게 심한 혐오감 느끼던 Louisa는 때마침 그 자리에 나타난 意氣의 청년 Alfred의 生動感(jet of life) 넘치는 모습에 강하게 이끌리면서, Massy의 非情性에 대해 그와 더불어 공동으로 저항해야겠다는 강한 同類意識을 느끼게 된다 (She felt she must protect herself and Alfred from him, p.118).

그리하여 Louisa는 혐오스러운 Massy와 결혼하려는 언니 Mary를 매우 나무랐고 이 일로 해서 두 자매의 관계는 급격히 소원해 진다(Her own revulsion made her recoil from the hitherto undoubted Mary, p.123). 말하자면, 자연의 實在的 欲望에 충실하는 Louisa는 實際的인 반면에 인위적인 규범에 충실하는 Mary는 觀念的이라고 할 수 있는데,⁷⁾ 행동의 순수성을 수반치 않는 Mary의 정신주의가 Louisa에게는 偽善처럼 생각되었고, 또한 그의 재산과 지위가 탐이 나서 그러한 위선적 결혼을 용납한 부모의 행위가 더욱 가증스러웠다. 이렇듯이 가족들의 타락상에 환멸을 느끼게 된 Louisa는 자기만은 애정의 순수성을 고수하여 사랑없는 결혼 따위의 수치스러운 행위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것이다.

7) F. R. Leavis는 Mary의 精神主義를 Louisa의 自然的 삶과 對比시키면서, 卽自態의인 삶의 現實을 對自態의인 意志의 所産인 觀念으로 代置시키는 것은 主客轉倒의 現象이라는 뜻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F. R. Leavis, *D. H. Lawrence: Novelist* (Penguin Books Ltd., 1981), p. 93.

...the fatal will is Mary's: it is the will that strives to substitute the idea, the representative of mental consciousness, for the reality; to impose the ideal on the spontaneous life.

깔끔치 못한 (uncouth) 광산 노동자의 인상 때문이었다. 와병중인 모친의 간청에 따라 그의 등을 씻겨 주려 할 때에도 낯설은 하층민 생활에 대한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이 (repulsive) 그녀의 솔직한 속마음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검은 석탄 가루가 씻겨진 그의 몸은 빛나는 하얀 피부를 드러내었고, 그녀 자신의 손으로 탄력있는 그의 육신을 감촉하는 동안 그녀는 이제까지의 격리감 (separateness) 대신에 뜨거운 열정이 용솨음쳐 옴을 느낄 수 있었고, 낯설었던 체험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으로 흥만케 되었다 (she felt strange and pregnant. p.137). 이 장면은 육체의 접촉을 통한 따뜻한 피의 삶 (warm-blooded living through contact with the flesh)을 표방하는 Lawrence 특유의 육체존중 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거니와, 목욕과 함께 석탄 가루가 벗겨지고 새로이 드러나는 Alfred의 육체가 Louisa에게는 마치 사회적 신분 차이라는 그 동안의 차단물을 제거하고 발견하는 인간적 가치의 실체처럼 느껴졌다. 육체의 접촉이 生의 中心에 대한 충격적인 顯示 작용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Alfred의 목욕 장면 묘사에 나오는 impersonal heat 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Lawrence의 육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경우의 impersonal한 인간관계는, 개성 상실이나 인간성 상실 등 흔히 있음직한 否定的인 의미가 아니라, 개인적인 알음의 특수 사정·疏遠함·서먹 서먹함·계급적인 上下意識·신분적인 차별감정 등이 가쳐진 심리 상태에서 가능한 것같은 인간관계이며, 이러한 보편적 우주적인 만남의 관계는 늘상 경험되는 현실의 것이 아니라는 뜻에서 신비적인 뉴앙스가 느껴지기도 한다. 다음 발췌문에서 보듯이 Louisa가 Alfred의 별거벗은 상체를 목격함을 계기로 하여 이제까지 그에게서 느껴졌던 광부에 대한 선입감과 거리감을 불식하고 純全한 熱情의 대상으로서의 남자를 直視하게 된다는 뜻에서 이 문장 속의 impersonal은 <脫階層的>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일단 이러한 脫階層的인 인식 태도가 정착된 다음에는 부분적인 差別相 (아래의 장면에서는 햇빛에 그을린 구리빛 목과 귀)까지도 생소한 (queer) 느낌보다는 따뜻한 親愛의 情(tenderness)을 자아낸다는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작자의 세심한 통찰이 엿보이는 대목이라 생각된다.

His skin was beautifully white and unblemished.... Gradually she saw it: this also what he was. It fascinated her. Her feeling of separateness passed away: she ceased to draw back from contact with him and his mother. There was this living center. Her heart ran hot. She reached some goal in this beautiful, clear, male body. She loved him in a white, impersonal heat. But the sun-burnt, reddish neck and ears: they were more personal, more curious. A tenderness rose in her, she loved even his queer ears. (p.137)

Alfred에 대한 잠시간의 저항감을 불식한 Louisa는 그의 모친의 병 구완을 위하여 그 집 가정부 노릇을 자정하고 나서지만 이번에는 남자 쪽의 자기방어 자세가 이들 남녀의 상호 접근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여자의 호의적인 도움을 오히려 경계하는 그의 태도는 어머니와의 애정에 얽매어 있으면서 새로운 차원의 애정 생활을 통한 활발한 자기 확대를 단념해 버리는 그의 애정 고착적인 성격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Louisa와는 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녀의 편리를 돌봐 주는 것에 즐거움을 느낄 따름이지 삶의 대등한 동반자로서의 진정한 인격적 접근을 위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다.

비천한 광부 집안이라는 성장 배경으로 볼 때에 상냥하고 인정 많은 양가집 규수로부터의 애정의 신호는 Alfred에게는 분명히 경이로운 삶 (the wonder of living)의 가능성을 암시해 주는 것이었고, 일찌기 겪어 보지 못한 자기 존재의 高揚感 (a sense of lifting)을 안겨 주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새로운 자기 혁신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에 홀로 앉아 있는 Louisa의 기품있고 탐스러운 모습은 그에게는 손에 잡히지 않는 환상처럼 느껴졌다. 새로운 차원의 애정 가능성을 눈 앞에 두고서도 자기 세계 확대의 기쁨보다는 自我 正體感의 혼미속에 당황해 하는 이같은 청년의 이미지는 어머니와의 애정에 예속되어 순조로운 연애 감정의 발전에 진통을 겪었던 D. H. Lawrence 자신이나 *Sons and Lovers*의 Paul Morel의 경우를 연상시키거니와 과거의 감정에 충실하려는 애정의 순수성이 자유로운 미래 개척에 장애물이 되는 것은 비극적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Then the nape of her neck was very white, with fine down and pointed wisps of gold. He watched it as it were a vision, losing himself. She was all that was beyond him, of revelation and exquisiteness. All that was ideal and beyond him, she was that—and she was lost to himself in looking at her. She was there like a wonderful distance. (p.139)

He could not recognize himself nor any of his surroundings. He was afraid to think of his mother. ...He could not escape from her, she carried him with her into an unformed, unknown chaos. (p.140)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Alfred의 행동력의 근원은 認知的이라기보다는 신체적 정서적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그의 삶에 활기와 균형 감각을 넣어 주던 어머니의 존재가 사라지자 그는 자신의 인격이 해체됨을 느끼면서 독서와 사색의 실마리를 잡을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다음 인용에서 보듯이, 모친 사망에 따른 자기 상실감을 육체노동에 의한 外面的 自己統制으로써 무마시키려 했다는 것은 그 만큼 인식 능력에 의한 자기 행동의 통제가 약한 탓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But the force and balance of his life was lacking. He sat pretending to read. ...enduring he did not know what. He walked the black and sodden miles of field-paths, till he was tired out... At work he was all right. If it had been summer he might have escaped by working in the garden till bedtime. But now, there was no escape, no relief, no help. He, perhaps, was made for action rather than for understanding; for doing than for being. He was shocked out of his activities, like a swimmer who forgets to swim. (p.142-3)

또한, 다음 대목에서 보듯이, 외롭게 죽어 가는 어머니에 대해 Alfred가 느끼는 슬픔은 그의 어머니의 痛苦처럼 육체적 아픔 (physical pain)이고, 그러한 슬픔의 정체를 사변적으로 구명해 내려는 노력은 헛된 것이며, 모든 사고와 意識의 파편은 다만 허망하게 霧散되게 마련이라는 표현은 physical meaning에 대한 D. H. Lawrence 특유의 집착을 짐작케 해 준다.

It was a fierce, cutting, physical pain of grief, that came on in bouts, as his mother's pain came on in bouts... He did not know where it came from, the pain, nor why. It had nothing to do with his thoughts. Almost it had nothing to do with him. Only it gripped him and he must submit. The whole tide of his soul... carried him with it helplessly, all the fitter of his thought and consciousness caught up as nothing. (p.140)

R. Kiely는 이 작품에서 강조되고 있는 physical meaning을 Alfred의 행동 특성에 국한시키지 않고 Louisa에게도 적용시켜 해석하면서, 그녀가 Alfred에게 적극적 애정표현을 촉구하면서 "Do you want me to go?"라고 말할 때에 그녀의 행동의 추진력이 의지적 노력보다는 非意志的 열정이나 육체적 고통 같은 데에서 나온 것이라는 묘사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Do you want me to go?' she asked, controlled, yet speaking out of a fiery anguish, as if the words were spoken from her without her intervention. (p.146)

R. Kiely나 M. Black의 견해에 의하면, 이 작품의 주인공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심리적 동기 유발의 이면에는, 思考나 意識이나 意志 등 理知的인 심리 현상보다도 感情이나 本能이나 육체적 반응 등 보다 더 자연적인 현상이 더욱 큰 지배력을 갖는다는 것이고, Lawrence 문학의 근원적인 특징은, 의식적인 인간 노력 다만 무의식적인 자연에 종속될 따름이라는 근본 가정에 입각해 있다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설명은 이 작품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인 바, Louisa가 Alfred의 등목을 시켜줌으로써 두사람의 낯설었던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급진전되는 장면은 그 대표적인 적용 케이스라 할 것이다.

The dramatic point of the story is that it is not thought, design, imposition of will, or even common sense that brings about union or separation, but nature itself. ...conscious art has been put to the service of unvonscious nature. Like Joyce, Lawrence seems to have been aware that sleight of hand or a contradiction might be involved in the use of artistic forms in the course of artlessness.⁸⁾

What takes place in his characters is not consciousness in the strict sense.⁹⁾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D. H. Lawrence가 애정의 端初로서 중요시하는 physical attraction의 의미는 일상 용어의 <육체적>이 의미하는 바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F. R. Leavis의 다음과 같은 지적이 가르키듯이, Alfred가 Louisa에게 풍기고 있는 physical attraction은, 성숙한 분별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생동하는 삶의 전체를 受容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8) Robert Kiely. *Beyond Egotism* (Harvard Univ. Press: 1980), p.66.

9) Michael Black. *D. H. Lawrence, The Early Fiction* (The Macmilan Press Ltd, 1986), p.192.

볼 때에 정신적인 함축성의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성질의 매력이다. 그러므로, Louisa의 will은 정신적인 관념에 치우친 Mary의 will과는 달리, 自然發生的인 삶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意識에 지배되기보다는 意識의 봉사를 받고, 意識을 초월하는 삶의 全體性에서 우러나오는 意志인 것이다.

'Love', here, is a richly charged word. It is focused, for Louisa, upon Alfred Durant, a physically attractive young man. From a brief abstract account of the situation one might very well assume the attraction to be of a simple and elementary kind. And it certainly strikes us as a wholly normal attraction of a young and handsome man for a young woman. But the attraction represented by the description of the man as a 'fine jet of life' is not a simple thing: the implicit appraisal is complex, and the 'life' appraised, if it is certainly 'physical', is equally 'spiritual'. ...That is, will in Louisa represents, not the mental 'idea' stubbornly seeking to impose itself on the spontaneous life, but the wholeness of the being (in Louisa it is whole), in which the conscious mind does truly serve the life that transcends it.¹⁰⁾

Alfred의 행동이 知的인 인식보다는 정서에 의존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군대 시절에 몸에 익혔던 不動姿勢가 제대후의 사회 생활에서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그가 하층민으로서의 사회적 열등감을 불식하고 상류사회와의 인간적 접촉을 시도하는 일은 자아 개념 혁신과 같은 認識能力의 증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군대식 기율에 의한 자기 감정의 통제라는 딱 기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Alfred가 Lindley家の 사회적 권위에 부딪치면서 종종 나타났던 군대식 무표정의 마스크는 맨먼저 Louisa와의 대화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그녀가 그의 어머니의 간병을 위해 그의 가정부 일을 맡아 주겠다고 나섰을 때 놀란 눈으로 그녀의 얼굴을 빨리 쳐다보는 그의 모습은 군대식 차려 자세로 경직되어 있었고 (He stood alert, at military attention, p. 139), 그럼으로써 그는 內心の 혼란과 갈등을 은폐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Alfred의 군대식 부동자세는, 모친 사망후 Mary 자매의 초청으로 Lindley家の 만찬에 참석했을 때 그곳 사람들 틈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격리감의 노출을 은폐시키기 위하여 두 주먹을 무릎위에 꼭 쥐고 꼳꼳이 앉아 있는 (with his fists clenched on his thighs, very quiet and unmoved, p. 143) 자리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Louisa의 심부름으로 Lindley家를 찾아서 Mary와 대면했을 때에도 그는 그 큰 저택의 압도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군인정신의 힘을 빌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s he sat in the hall of the vicarage, waiting whilst Mary put things for Louisa into a bag, he wondered why he had been so upset. He felt abashed and humbled by the big house, he felt again as if he were one of the rank and file. When Miss Mary spoke to him, he almost saluted. (p. 140)

10) F. R. Leavis의 앞책, p. 98~9.

Alfred가 군인 정신의 힘을 빌려 사회계층적인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태도는 주체적인 열등감이나 능동적인 성취감까지도 마다하는 태도로서 그것은 곧 운명적으로 주어진 의무를 수행한다는 수동적인 마음가짐이었다. 그리하여, Louisa와의 약속대로 Lindley 목사 부부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아 낼 때의 그의 심정은 확고한 자아 개념과 주체의식으로써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혼은 이미 정해진 운명과 같은 것이고, 자기는 별다른 감정이나 열의도 없이 그 운명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마치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려 할 때처럼, 자아의식이나 저항감을 묵살하고 단호히 결행해야 할 의무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자 Lindley 목사에게 딸에 대한 결혼 허가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다.

The next evening he dressed to go to the vicarage, feeling it was to be done, not imagining what it would be like. ...He was sure of Louisa, and this marriage was like fate to him. It filled him also with a blessed feeling of fatality. He was not responsible... They ushered him into the little study. By and by the vicar came in. His voice was cold and hostile as he said:

'What can I do for you, young man?'

Durant looked up at him, again like a sailor before a superior. He had the subordinate manner. ...He must not be indecisive. He must put himself aside: the matter was bigger than just his personal self. He must not feel. This was his highest duty. (p.148-9)

이처럼 Alfred는 최대한의 자의식 마비 상태에 이르러서야 최대의 용기를 내어 자기 주장을 펼 수 있었고, 그리하여 다음 인용에서 보듯이, 군대식 부동자세를 잠시 그만두자 그는 자아 정체감의 혼미를 겪으면서 몸가짐을 흐트러뜨리고 대담성을 잃어 버려 옆에 있던 Louisa의 실망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Durant, flushing, went over and stood-not quite at attention, so that he did not know what to do with his hands. Miss Louisa was angry to see him standing there, obedient and acquiescent. He ought to show himself a man. (p.150)

IV.

위에서 보았듯이, Alfred는 모친에의 애정과 하층민으로서의 신분의식에 얽매인 자기 세계의 폐쇄성을 극복해야 할 상황에서, 자신의 성격 결함과 인식 수준 미달을 보충하는 방편으로서 군인 정신의 힘을 빌려서만 정서적 불안정을 방지할 수 있었다. 自然의 충동에 충실히 따르는 노동자로 묘사되고 있는 그가 인간성의 자연에 위배되는 군대식 무감각의 마스크에 의존했다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그의 성격 특징인 現實 및 상상세계의 兩分에 병행하는 또 하나의 자기 분열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¹¹⁾ Lawrence는 하층 계급의 소박한 서민 생활에 대하여 항상

11) Alfred의 성격의 복합적 구조에 대한 R. Kiely의 설명은 매우 흥미롭다. 그의 말에 따르면, Alfred Durant는 *Sons and Lovers*의 Morel父子, 즉 自然的인人間型과 藝術的인人間型이라는 두가

따뜻한 애정을 보냈거니와 상층 계급에 비하여 허위의식의 타락상을 덜 보여주는 것으로 비쳐진 하층민을 이같은 自己分裂의인 인간상으로 그려냈다는 것은 미상불 주목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삶의 진실성이란 劃一的인 統合性보다는 거짓없는 自己分裂 속의 끊임없는 내적 갈등과 고뇌 가운데에서 찾아 진다는 그 자신의 인간관에서 유래된 일이라고 보아진다. 이에 관련해서는, W. W. Robson도, Lawrence 문학의 교훈성은, 작품 주인공의 무자각적 自己確信에서가 아니라 끊임없는 회의와 自己反省에 의해 독자들의 공감을 획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Even where Lawrence has clearly fallen into special pleading, we can find this fullness in the presentment of the situation which gives us room to make up our own minds. ... (A simpler example is the short story *The Daughters of the Vicar*, in the character of the miner Durant, who represents instinctive 'life' in the fable, but who turns out to have intense inner difficulties.) It is notable that Laurentian didactic prose is at its best when it reveals, in its oscillatory, fluctuating movement, this recurrent self-questioning.¹²⁾

Alfred의 內的 分裂이라는 성격 결함이 이와 같이 그의 인간적 성실성에 기인하는 것이고, 그의 인간적 성숙 과정은 자기 분열적인 성격에 필연적인 心的 갈등과 고뇌를 동반하고 있음에 비해 볼 때, 사회 계층 의식의 포로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Massy-Mary couple의 심리 특성은 좀 유다른 데가 있다. Mary는 청년 목사 Massy의 청혼을 수락함에 있어서 목사라는 직업에 수반되는 사회적 위신과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인간적 육체적 욕망을 외면하고 있지만 Alfred가 보여준 바와 같은 內的 분열과 고뇌의 모습은 별로 보여주지 않았다. 하기는 Mary의 경우에도 육체의 의미를 압도케했던 도덕적 의무감과 계급의식은 아기를 갖는다는 육체적 체환 앞에서 한 때나마 잠시 퇴색하였고 자신의 본능 억압적 생활 태도에 대해 의문을 던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자기 회의는 가치의식의 근본적인 동요를 가져올 정도로 심한 것이 못되었고, 사회적 신분에 대한 거듭되는 확인이 그녀의 삶의 의미 정립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에 변함이 없다. 다음 발췌문에서 보듯이 Mary는 사회 계층의 上位者가 下位者에게 베푸는 자선 행위를 통하여 하층민 Alfred에 대한 자존심과 우월감을 유지하고 있다.

지 인간형의 결함치고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자연적 삶은 말하자면 직접적 斷絶로서의 人生의 물결에 全身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예술적 삶은 그러한 자연적 삶의 물결에서 이탈하여 방관자로서의 심미적 비판적 시선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同一한 인간성 속에 이러한 두가지 인간형의 삶을 포용한다는 것은 二重의이고 自己分裂의인 구조를 지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Alfred the young miner, is more sensitive and self-assured than Walter Morel. In fact, Alfred Durant is a fascinating combination of Paul Morel and his father. He's physically strong, an amiable, natural man who likes his work in the mine and gets on easily with his fellow. But he is also self-taught: he likes books, sings in the choir, and plays piccolo. He is not an artist but a natural man with the possibility of an artist. (R. Kiely의 앞서, p.65)

12) B. Ford ed., *The New Pelican Guide to English Literature*, Vol. 7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Books Ltd., 1983), p.360.

'An honest man', thought Mary. And the patronage was applied as salve to her own sickness. She had station, so she could patronize; it was almost all that was left to her. But she could not have lived without having a certain position. She could never have trusted herself outside a definite place, nor respected herself except as a woman of superior class. (p.140)

그러나, Mary의 자존심 유지가 아무리 그녀의 俗物主義的인 신분의식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또한 그녀 자신이 자기의 그러한 위선적인 자존심에 대해 괴로워하고 (sickness) 있다는 또다른 측면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바로 이 점이 그녀가, 철저한 자기확신 속에 살고 있는 남편 Massy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Massy 목사는 자신의 종교적 신앙심과 지적인 논리에 대하여 추호의 의심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논리적인 明證性의 허망스러움을 역설했던 Lawrence 문학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의 논리적인 오류를 야유하는 것이 Massy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성격묘사 (p.114)는 이 청년 목사의 자기 중심주의가 그 만큼 구제불가능할 정도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의 믿음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반성이야말로 자기 수정과 발전 가능성으로 향하는 기본 요건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Alfred-Louisa couple의 사랑에 있어서 또 하나 주목을 끄는 것은, 자연으로서의 삶을 대표하는 이들 두 사람 사이의 애정 생활의 주도 역할이 여자인 Louisa 쪽에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이것은 Alfred의 자연적 삶이 Louisa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정도보다도, Louisa의 자연에 대한 욕구가 Alfred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일 것이다. Alfred의 생활은, 그의 성격이 지닌 自己分裂的인 특징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육체의 기쁨과 노동의 즐거움을 바탕으로 영위되고 있었고, 사회적인 위신이나 인위적인 규범 때문에 자신의 自然 本能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생활은 아니었다. 한 마디로 그의 生의 意志 가운데에는 自然 本性 以上の 어떤 힘에 예속당하지 않는다는 소박함 (a simple independence in his willingness, p.139)이 있었다. 반면에 Louisa는 사회적인 위신 때문에 인간성의 자연을 억압하는 목사관 생활에 대해 질식할 것 같은 (dingy with gloom, p.126) 욕구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답답한 자기 생활에 혁신의 새 바람을 불어 넣어 줄 광산 노동자 Alfred를 애정의 상대로 택할 만한 심리적인 필연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친 사망의 충격 속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Alfred를 찾아간 Louisa는 자신의 행동이 지닌 의미를 자각하고 있었고 대좌한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그녀의 마음은 차라리 침착할 정도였다 (Her repose was exquisite, p.144). 이에 반해, Alfred는 석탄가루로 더럽혀진 자기 몸이 쉿피스러운 뿐 그녀의 방문 목적에 대해 흥미를 가질 경향이 없었고 그의 이러한 둔감성(neutrality)은 Louisa의 안타까움을 부채질 할 따름이었다. 그의 수줍음(reserve)은, 그러므로 Louisa로부터의 애정의 신호를 感知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그는 오히려 Conada로 이주하려는 자기의 야망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녀가 무정한 (impassive) 사람으로 여겨졌으며, 그녀의 안정된 가정 (something steady and immovable, p.145)에 비교해 볼 때 자기 집안

의 약한 뿌리는 가슴조이는 아픔(an anguish of suspense)을 안겨줄 뿐이었다. 그러나, Louisa는 억제할 수 없는 강한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그녀의 일방적인 접근을 두려워 하는 Alfred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연타한다. 마침내 Louisa가 그에게 “Don't you want me?”라고 당돌하게 물으면서 그의 무감각을 깨우쳐 주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물질이 트이기 시작하는데, Alfred가 망설여 지는 두 팔을 뻗어 그녀의 몸을 껴안으면서 벌어지는 이들의 정겨운 애정 교환은 남녀간의 사랑이란 것이 인간의 心魂에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은 즉 연애 행위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의미 변화를 가져오고 완강한 과거의 굴레를 결연히 깨뜨리는 중대한 자기 혁신의 계기가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순간의 이들 남녀는 인간의 자기 인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층의 껍질에 싸여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자기 인식의 맨 밑바닥 층에 자리하고 있는 무의식의 덩어리에 의지했을 때 비로소 진실한 사랑의 힘이 샘솟을 수 있음을 암시해 준다. 이 순간의 그들의 정신 상태, 즉, 사회계층간의 차별 의식도 없고, 상대방을 이기적인 욕구충족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우월감도 사라지고, 그리하여 두 사람간의 두려움이 순수한 욕망과 우주적인 생명감으로 승화되고 자연으로서의 본능과 충동에 내맡겨진 이러한 심리 상태는 Lawrence에게 있어서는 남녀간의 사랑에 도취할 때와 같은 삶의 절정의 순간으로서, 다음 대목에 나오는 spellbound, inhuman blindly, lost consciousness, falling from self, a kind of death of herself, a moment of utter darkness등의 표현은 바로 이러한 진정한 사랑 체험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Don't you want me?' she said helplessly.

A spasm of torture crossed his eyes, which held her fixed.

'I—I-' he began, but he could not speak. Something drew him from his chair to her. She stood motionless, spellbound, like a creature given up as prey. He put his hand tentatively, uncertainly, on her arm. The expression of his face was strange and inhuman. She stood utterly motionless. Then clumsily he put his arms round her, and took her, cruelly, blindly, straining her till she nearly lost consciousness, till he himself had almost fallen. ...his brain reeled round, and he felt himself falling, falling from himself, and whilst she, yielded up, swooned to a kind of death of herself, a moment of utter darkness came over him, and they began to wake up again as if from a sleep. He was himself. (p.146)

Alfred과 Louisa가 사회적인 신분의식에서 생기는 사랑에의 두려움을 순수한 열정과 욕망으로 극복해 낸 (fear was transfused into desire, p.147) 이 순간은 결국 이 작품의 주제인 문명에 대한 자연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극적인 체험을 통하여 오랜 아픔의 시간은 최후의 축복으로 끝났고 (all the echo of pain came back into the rarity of bliss, p.147), 그의 마음은 감사와 안도의 여유를 회복하면서 두 사람의 굳은 결합을 다짐함으로써 길고 어려웠던 사랑의 행로에 새로운 희망을 걸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Alfred 대 Louisa의 결합이 문명에 대한 자연의 승리를 의미한다 함은, 이들 두 사람이 제각기 문명의 소산이라 할 사회적 신분의식의 속박이라는 사랑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새로

운 자기 혁신의 제기를 만들었다는 점과, 이들 두 사람의 결합은, 계급의식이라는 문명의 속박을 끝내 벗어나지 못한 Massy 대 Mary의 결합에 비하여 애정의 기쁨과 축복스러움을 더욱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첫째 측면에서 본 자연의 승리는 이 두 사람의 성공적인 결합으로써 自足的으로 完結되는 것이지만, 두번째 측면의 自然勝利는 Massy-Mary couple로 상징되는 계급차별적 문명사회로부터 이들 두 사람이 추방된다는 작품 결말로 인하여 그 승리의 의미가 크게 완화되고 있다. 즉, Alfred과 Louisa는 Lindley목사에게서 자신들의 결혼 허가를 얻어 내긴 하지만, 노동자 신분과의 결연이 가져올 가문의 위신 손상 (loss of prestige)을 이유로 들어 이들 couple의 Canada출국을 중용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Lawrence가, 인간성의 자연을 추구하는 이상적 애정 실현의 터전으로서 이처럼 기존의 문명 세계를 제외시키고 미지의 이역 땅에다 희망을 걸었다는 것은, 기존 문명에 대한 작가 자신의 절망을 말해 주는 것이거나, 희망찬 애정 실현을 위한 문명 세계 탈출이라는 작품 결말은 장편 *Lady Chatterley's Lover*의 초판본, 중편 *St. Mawr*, *The Man who Died* 및 단편 *The Fox*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이 작가 특유의 문명 부정 사상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신분 의식이라는 것도, 모든 생물체들이 지니게 마련인 생존경쟁 과정의 자기보존 욕구의 표현이라고 본다면 일종의 자연 본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Lawrence의인 문명 비판의 맥락에서 볼 때에, 사회신분에 의한 인간 차별은 어디까지나 문명화의 오도된 전개에 따른 인간적 자연상태의 파괴인 것이요, 본래적인 인간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되며, *'Daughters of the Vicar'*의 문명부정적 의미도 이같은 관점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을 평가하는 마지막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류계층 사람들이 상류계층 사람들에 비하여 더욱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자연본성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는 주장은 비판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Mary의 계급의식적 우월감을 분석하는 자리에서 F. R. Leavis는, 삶의 全體性을 溫存的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보다 큰 기회는 하류계층인 노동자 사회에 주어진다라는 Lawrence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¹³⁾ 그러나, 상류계층 사람들은 계급적 우월감 (class-superiority) 때문에 삶과 現實의 眞實에서 멀어지게 마련이라는 이들의 견해는 분명히 인간 의식에 대한 환경결정론적인 편견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 점은 이 작품에 담겨진 Lawrence의인 문명 비판의 한 가지 중대한 虛點이라 생각된다. Alfred가 광산 노동자 생활을 고집하는 것도

13) 'Reality' and 'life' have both taken on a further defining charge when we say to ourselves that the class-superiority for which Mary has renounced life is indeed unreal. It is an unreality that at the same time makes us recognize its sinister power in its presence. ...we may note here that the real superiority, the reality of life to which Louisa has just paid her tribute, is seen as associated with certain working-class conditions. These, in the cottage-born, have allowed the essential life to assert itself as in the slaves of impoverished gentility it could not. Alfred has insisted on going into the pit. We are made to feel the satisfyingness to the miners of the work there: ...a variety of labour, holling, loading, timbering, and a glamour of mystery and aventure in the atmosphere, that made the pit not unattractive to him ... (F. R. leavis의 앞책, p.108~9)

광부 생활의 작업 내용이 그의 근원적인 생명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Lewis의 설명이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발견되는 노동자들의 인간소의 현상은, 수많은 자본주의 비판자들의 난해한 논설을 접어 두고라도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목격되는 현대 문명의 중대한 폐단에 속한다 할 것이다.

Summary

D. H. Lawrence's Theme of Overcoming the Class-consciousness

Yang Young-shoe

This paper is to deal with 'Daughters of the Vicar', D. H. Lawrence's short story which shows the author's acrid criticism on the 'unnatural' class-consciousness. D. H. Lawrence raised a strong objection to the various phenomena of dehumanization present in the human civilization, one of which is taking the shape of social consciousness of class-distinction. According to this devoted advocate of the return to the 'nature', nature of the human being has been destroyed by the fatal effect of the false and artificial convention.

Reverend and Mrs. Lindley are the first embodiment of this dehumanized ideality described in 'Daughters of the Vicar'. They are isolated by their class-superiority from the 'disaffected' miners of his parish without sympathizing with the unpretentious, spontaneous, simple life style of the parishioners. So that their heartfelt welcome to a young clergyman named Mr. Massy is quite understandable since they considered him as a likely husband of their marriageable daughter, Miss Mary.

Mr. Massy is subhuman not only physically but also emotionally, utterly incapable of having 'the full range of human feelings', and only with rather 'a strong philosophical mind. But Miss Mary submitted to his proposal as if to 'a higher fate' suppressing her own natural and instinctive aversion. Mary's heroic act of self-denial in the interest of moral duty and dignity is in direct contrast with the rebellious attitude of her sister, Louisa. Louisa has a deep hatred to the inhuman spirituality of Mr. Massy, and feels this dreadful curate must be expelled from the natural life which is pursued by her and Alfred Durant, since she perceives 'fine jet of life' in his figure.

The Alfred-Louisa couple also suffered from the poisoning element of classconsciousness at first. But they succeeded in overcoming their deep-rooted social distinction through the ritual effect of her scrubbing his body, and later on Louisa's own eager approach toward Alfred's long-reserved personality. He gets rid of his once-split consciousness about the ideality and reality of women with the help of the initiative-minded Louisa, and in so doing learns to get released from the emotional bondage to his mother. They experience the Lawrencean version of rebirth through love, and the eventual fulfillment of their combination may be viewed as the success of the natural life in the face of the conventional, artificial morality.